

오월의 아픔 위무한 천상의 날갯짓

광주시립발레단, 'DIVINE' 공연 리뷰

성결한 분위기에 관객들 압도 광주만의 브랜드가치·철학 보여줘

관객들은 폴란드의 성지 '검은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듯 엄숙했다. 발레리노는 무대 전체를 뒤덮는 초대형 암막커튼을 튀튀(발레 스킵)인 양 허리춤에 두르고, 흑막과 혼연일체가 됐다. 흘러나오던 성가 '아베 마리아'는 성결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관객들을 압도했다.

한 마리 블랙 스완의 몸짓이 잦아들자 다시 순백의 발레리나들이 몰려와 천사들의 열병식을 재현했다. 이들의 검고 흰 군무를 '신성(Divine)' 하다고 묘사한 표현을 대체할 말은 없을 것 같다.

지난 14~15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의 134회 정기공연 'DIVINE'은 광주만의 브랜드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5·18민주화항쟁을 모티브로 관객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작품 구성과 안무만큼은 컨템포러리 발레답게 자유분방하고 역동적이었다.

이번 작품은 박경숙 감독이 '광주시립발레단만의 특성을 담은 공연'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했다. 광주 출신의 발레마스터 주재만이 안무가로 동참해 공연 전부터 화제가 됐다. 보그단, 강은혜, 이택영, 강은혜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관객들은 75분 동안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세 액션의 10개의 악곡과 춤을 감상했다.

먼저 1장은 '자유(Freedom)'라는 제목으로 5개 노래와 안무가 펼쳐졌다. 오월 이전부터 군부독재의 불만에 고뇌하던 광주시민들의 모습을 '내가 침묵한다면' 등의 악곡에 담아냈다. 무용수들은 바닥에 흠뻑 젖은 젓가락을 내리치며 통곡하는 것으로 고뇌를 표현했다. 전위적이고 과감한 안무는 단원들의 춤과 결합해 압제 하의 광주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첫 액션에서는 무용수들이 바닥에 주저앉거나 구르는 동작이 많았다. 공중을 점프하는 '그 란제페'나 '소페' 같은 발레의 화려한 기교는 초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1980년 5월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바닥을 구르는 장면이 제격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솟아나는 꽃병오리를 묘사하는 동작은 간절한 민주화의 열망이 담



새하얀 남녀 무용수들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겨 애처롭기까지 했다. 이어 사선으로 쏟아지는 주홍빛 조명. 민주화 열사들의 투옥된 쇠창살 감옥을 연상하게 만드는 조명 너머로 "So dark, So dark, So cold, So silent"라는 노랫말이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To grave(무덤으로)"라는 가사로 마무리됐는데 죽음은 은유하는 것으로 다가왔다. 시신을 운구하듯 서로 질질 끌고 다니며 당시를 재현하는 무용수들의 몸짓마다 광주의 한(恨)이 스며 있었다.

2장은 'Out of the darkness'라는 주제로 '강물빛', '기도' 등 4개의 악곡이 이어졌다. 조금 밝아진 무대에 흰 구름 분장을 한 무용수들이 등장했고, 그 사이를 발레리나가 유영하듯 춤을 추며 시선을 끌었다. 물고기나 새의 동작과 비슷했으나 그보다는 원초적이고 추상적인 존재에 가까워 보였다. 바닥에서는 마흔다섯 개의 빛기둥이 솟아올라 연개는 광주에 도래할 항구적 평화를 기대하게 했다.

한편 검은 천을 두른 무용수들이 중앙에 자리하면서 무대는 다시 비극으로 치달았다. 그들은 바닥에 떨어진 '제'를 검은 천으로 내려쳐 파문을 만드는데 마치 민주화 투쟁과 상흔을 몸으로 이야기하는 듯했다. 아울러 무용수들은 호송되는 죄수와

같이 검은 천을 머리에 감싸거나, 망토처럼 등에 둘렀다. 역사 속에서 '죄인'으로 고초를 겪은 민주화 열사들이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하려는 동작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3장의 주제는 'The Divine Human Beings'. 천사같은 유니타드 원피스와 화이트 레오타드 드레스를 입은 무용수들이 민주화의 가능성을 염원하듯 순백의 무용을 펼쳐 나갔다. 점층적으로 화려해지는 의복은 연출가의 의도.

무대 위에는 '배 조형물'이 반쯤 접힌 채 공연이 끝날 때까지 매달려 있다. "무용수들이 신대륙을 탐험하는 모험가들 같았다"는 박경숙 예술감독의 말처럼 '평화의 배'를 타고 민주라는 성토로 향하는 의미일까. 교회당의 종소리가 무대에 끊임없이 울리고 무용수들은 민주화운동의 용비(雄飛)하는 기상을 담아 희망찬 점프를 반복했다.

한편 공연은 허공에 매달려 있던 배 모양의 성물이 지상으로 서서히 내려오며 마무리된다.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영령들을 기리는 듯 송고하게 내린 막 사이로 관객들의 갈채가 쏟아졌다.

광주의 5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DIVINE'은 천상의 날갯짓으로 잠시나마 광주와 희생영령들의 아픔을 위무하는 듯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나의 즐거움이자 사랑 '닭'

문희진 'FRESH' 전...31일까지 ACC호텔 갤러리

24시간 불빛이 비추는 비좁은 공간, 닭들은 몸을 바짝 붙인 채 연신 달걀을 낳는다. 수십 수백 개의 달걀은 예쁜 모양과 색깔을 지니고 있지만 닭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작은 공간에 갇혀 끝없이 달걀을 낳아야 하는 닭들의 운명은 밀집 사육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ACC호텔 갤러리(동구 금남로 226-11)에서 열리고 있는 문희진 작가의 'FRESH'전은 닭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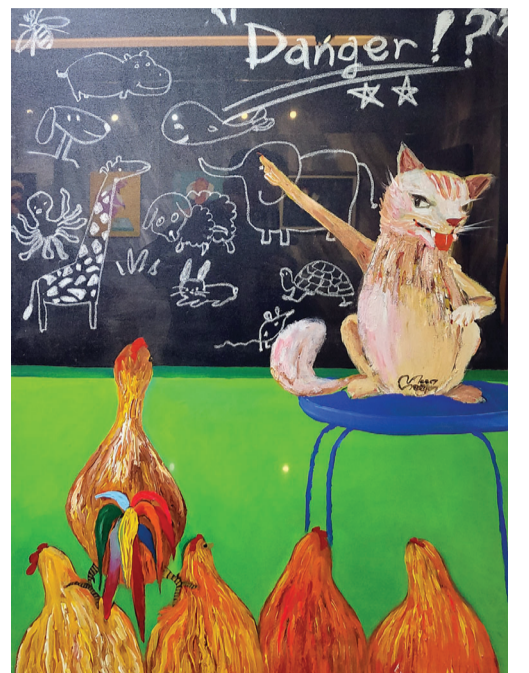
오는 31일까지 개최되는 전시에서는 모두 25점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작품들은 유니크하고 유머러스하다. 작가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닭에 대한 모습과 상상은 은근한 미소를 짓게 한다.

작가가 닭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전원생활을 하면서였다. "나의 즐거움이자 사랑"인 닭을 매개로 작가는 다양한 이미지와 단상을 풀어낸다.

발랄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은 'Shit'. '종년'에 이른 건장한 체구의 닭이 바위에서 낳았는데 걸린 물고기를 낚아 올린다. 팽팽하게 당겨진 낚싯줄 아래 걸린 물고기는 너무나 작다. 그런데 그 옆에 나뭇가지 위에 올라 선 황새는 기다란 주둥이로 자신의 몸 길이만한 물고기를 가볍게 물고 있다.

그를 쓰고 작은 물고기를 낚아채려 애쓰는 닭과 황새의 여유로운 모습은 사뭇 대조적이다. 황새와 닭이 펼치는 물고기 잡이는 애당초 게임이 되지 않는다. 닭의 주둥이에서 'Shit'라는 비속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작가는 유머러스하면서도 독특한 발상으로 닭을 의인화한다.

작품 가운데는 고양이와 닭들을 상대로 위험한 동물들에 대해 교육하는 장면을 포착한 그림은 희



'Danger!?'

극적이다. 코끼리, 하마, 문어, 거북이 등을 조심하라고 단상에 선 고양이가 열변을 토한다. 그러나 정작 가장 위험한 동물은 고양이 아닌가.

문희진 작가는 "닭은 한결같이 따끈따끈한 달걀로 내 건강도 챙겨줬다. 아름다운 현신이다. 그 자체가 예쁘기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다. 집안 음식물 쓰레기는 종류를 마다하지 않고 먹어 치웠고 먹고 산 톱으로 온갖 과실들을 기르지게 했다"고 상찬한다.

한편 문 작가는 Flower전, House전 등 단체전 및 그룹전을 비롯해 서울, 부산, 군산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시인들의 세계

박철영 시인, 평론집 '충위의 시학' 펴내

"시인의 마음과 가장 닮아있는 시적인 고유성이 '시간'과 '계절'의 중첩인 '충위' 안에서 상상력을 통해 형상화된다는 것을 화두처럼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내 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의미를 내가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 말에 대한 고뇌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해 가능한 결과로 매듭짓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시인인 박철영(사진) 평론가가 창작과 평론의 경계를 오가며 시를 쓰고 비평을 하는 이유다. 하 나를 정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두 길을 아우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야말로 '충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박철영 시인이 이번에 펴낸 '충위의 시학'(작가)은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시인들의 시적 세계를 조망한다.

저자는 이번 평론집에서 '계절 속 충위'에서 환기된 사유를 시적 상상력으로 발화한 결과를 시라고 규정한다. 특히 이번 평론집에는 지역 문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 깊이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1980년 5월 항쟁을 거치면서 출현한 시인들의 시를 조망했다. 나종영 시인을 비롯해 나해철, 박용구, 이영진, 최두석 등 5월시 동인, 조진태, 조성국, 정운천, 송태웅, 이상인, 김인호, 김지란 시인들의 시 정신과 5월 문학의 현주소를 탐색했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와 2부는 문예지에서 추천한 시인의 신작시를 매개로 전개되는 시적 흐름을 주목했다. 이 흐



름이 계절성과 맞닿아 상상력으로 확장되면서 시적 공간으로 어떻게 환기 발화되는가를 들여다보았다.

3부와 4부에서는 저자가 발표한 계간 평으로, 지난 문예지들 중에서 선정한 시에 대한 평론을 실었다. 여기에서는 시인들의 사유가 감상에 머물지 않고 시적인 상상력으로 발현되는 것을 살폈다.

저자는 "시의 지점은 계절로 이어지는 시간의 충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시인의 변별적인 시적 사유에서 발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 출신의 박철영 시인은 '현대시문학'에서, '인간과 문학'에 평론이 당선돼 등단했으며 시집 '비오는 날이면 빗방울로 다시 일어서고 싶다' 등과 평론집 '해체와 순응의 시학' 등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창극단 단원 외부공연 안돼'... '명인명창명무전' 취소 위기

광주시 "시 주최 행사만 출연" 주최측 "공연 무산 시 법적조치"

광주시가 시립창극단 단원의 외부 공연 출연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열리는 제3회 '명인명창명무전'이 공연을 5일여 앞두고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김광복 명인명창명무전 감독에 따르면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예술감독들을 대상으로 '향후 광주시 주최 행사만 단원들의 외부 공연을 허가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달 20일 한 외부행사에 광주시립창극단 단원이 광주예술의전당의 승인 없이 판소리 공연을 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광주예술의전당은 시립창극단이 지난 5일 신청한 3건의 외부공연에 대해 13일 미승인 통보했다. 이 조치로 인해 시립창극단원 5명

이 현재로서는 명인명창명무전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사)아시아민족교류협회가 주최, 김광복류피리산조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21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김광복 감독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연진 확정과 홍보물 제작 등 공연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지난 5일 신청했던 공연을 뒤늦게 불허 통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불허 문제와 관련 16일 오전 김 부시장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부시장이 '공문을 처리하는 시기 등은 전당장 재량이며 시립예술단원으로서 광주시가 주최하는 공연이 아닌 외부공연은 금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감독은 "나도 예술감독으로 오래 일했지만 단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공연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감독 재량 아래 승인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3월 1일 개정된 광주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르면 '단원은 광주광역시 주최·주관하는 공연 이외에는 출연할 수 없'도록 돼있다. 다만 공연 7일 전까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요청으로 관장(전당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복무규정상 제5조에는 '품위유지의 의무'도 명시돼 있다. '단원은 근무시간 내외의 불분하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감독의 말과 복무규정을 종합해보면 광주시와 전당 측은 해당 규정 등을 토대로 공연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감독은 "공연이 불발 될 시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불사하겠다. 17일 오후까지 전당과 시에 답변서를 요청한 상태이다"고 언급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셔틀→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셔틀→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